

古代聚落의 空間構造

(完)

崔 宗 鉉

(圓光大學校工科大学專任講師)

3. 聚落의 形成

3-1 協業化 意識

人間은 최초의 定住地로서 自然環境이 가장 온화한 地帶를 찾아서 雨季와 乾季가 있고 植物은 生長기와 휴식기를 갖을 수 있는 곳을 찾는다. 즉 인간은 生存에 필요한 食糧, 물을 収用할 수 있는 生活帶를 위해서 共生的 協業化 意識이 생겨난다. 이러한 生活帶를 토대로 해서 “人間은 유용한 生産物을 만들고 그들의 福利를 증진하고 그들의 人口를 늘리기 위해서 그들의 環境 가운데서 보다 많은 기회 또는 資源을 발견했다. 環境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을 占據하고 있는 사람들의 知識과 취향에 의해서 나타난다.” (18) 人間에 주어진 自然環境은 조건적인 意味에서 그것에 適應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消滅해 버릴 것이다. 그래서 人間은 社会的 連帶性을 가지며 家族 團單로서의 父母, 兄弟愛에 도달할 때 인간은 人間精神의 맨처음 構造속에 集團形態가 設計되고 그러한 社會들은 人間이 自然 속으로 出生함과 같이 人間은 知的인 동시에 또한 社会的인 存在로서 그 社會性은 조그마한 共同體에서 活動하기에 알맞도록 되어있고, 그것은 또 個人生活와 小集團의 生活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社會生活은 우리가 生物의 生活에서 보는 보편적 과정을 되풀이되고 있다.

Lévi-Strauss는 “家族은 結婚에 의해 出發한다. 그것은 夫婦와 그들의 結婚에 의해 出生한 子女로서 構成되지만 이들 核集團에 다른 近親者가 包含될 수도 있다. 家族構成員은 法的紐帶, 經濟的, 宗教的 그리고 權利와 義務 性的 權利와 禁制, 愛情, 尊敬, 敬畏등 多種 多樣한 心理的 情感으로 結合되어 있다.” (19) 또 G.P.MURDOCK은 家族이란 共同의 居住, 經濟的 協力 그리고 生殖이란 特性을 갖는 社會集團이다. 즉 家族은 共同의 居住라는 特性을 갖고 있다고 함으로써 同居集團임을 強調한다. 그런데 同居란 한房, 한지붕, 한울타리에서 같이 생활함을 意味한다. 이것은 家族 集團과 家族集團사이의 物理的 限界를 形成하는 地域性을 갖는다. 또 家族集團은 家政의 祈福을 목적으로 하는 集團으로서 家宅神을 모시는 機能으로서 家宅神의 神殿이다. 여기서 男女의 機能의 分化가 생겨나며 男女 서로가 補完의 相對로서 存在

한다. “모든 人間 관계는 그 發生順序로 볼 때 男女 관계로 부터 始作된다. 그래서 「禮記」에서는 男女는 人倫의 근본이요 萬世의 始作이라고 하고 男女관계가 바르게 成立되어야 父子관계, 君臣관계등 다른 모든 人間관계가 바르게 成立되며 萬物이 安定된다고 한다.” (20) 이러한 男女의 구별은 性적인 문란을 막고, 居處의 구별로서 男女는 각각 住宅의 外, 內에 일을 구별하여 그들의 生活機能 領域을 限定하는 것이다.

“집이 形成되려면 家族이 居住할 建物과 家族의 生活를 維持할 수 있는 財産이 必要하다. 그래서 家族도 ‘집’이라 부르지만 建物도 ‘집’이라 부른다. 따라서 집은 居住單位, 財産單位이기도 하다. 이것을 다른 말로 表現하면 집은 居住와 財産이 必要條件이라면 子息은 집의 充分條件이다.” (21) 즉 固有한 家族의 機能으로서 性的統制의 機能, 生殖의 機能, 子女扶養의 機能, 社會의 機能을 들수 있으며 家族의 派生的 機能으로는 經濟的 生産機能, 教育의 機能, 保護의 機能, 娛樂의 機能, 休息의 機能, 宗教的 機能을 들수 있다.

특히 家族은 生命의 連帶性이 끊인데 없고 파괴할 수 없는 生命의 통일에 관한 그들의 確信이다. 또 家族은 集團體制의 類型인 동시에 이러한 集團體制는 環境과 關係되는 體制로서 自足的 性格을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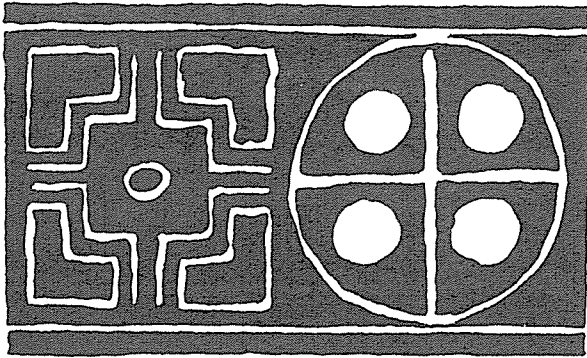
초기의 住居中心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住居가 아니었고 地理학적으로 보면 물자의 運搬을 최소한의 거리에서 할 수 있는 地點에 있는 그 集團의 採集領域을 갖고 있으며 定住한 生物學的, 社會學的 集團 즉 하나의 共同社會이다. 時代의 흐름과 文化의 發展에 따라 本來 家族의 이행하여 온 社會의 役割이나 重要性이 人間의 生活 發達과 함께 縮小 分散되었다. 人間과의 관계는 人間의 相互作用과 行動을 意味한다. 이러한 人間의 相互作用과 行動은 결코 靜態의이 아니므로써 家族의 機能도 社會의 制 조건의 差異 또는 變動에 따라 變動을 보이며 또 時間的 空間的으로 動態的인 모습을 갖는다. 劉永珠는 家族의 集團의 特性을,

○一次의 集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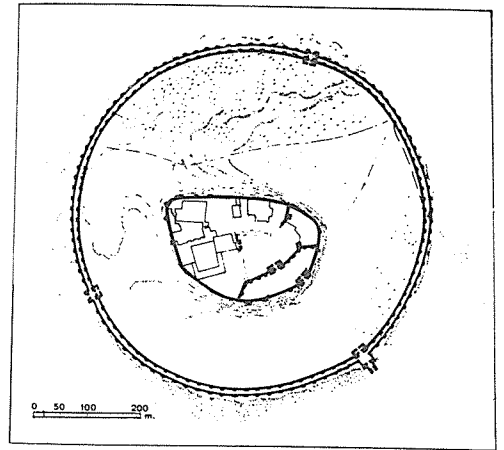
○共同社會

○形式的이고 制度的 集團(家族關係는 非形式的, 非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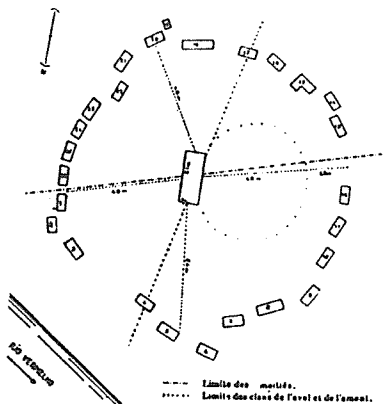
등의 紋樣 등에 描寫하고, 이러한 描寫는 人間이 超自然力에 대한 공포이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능동적인 하나의 意圖로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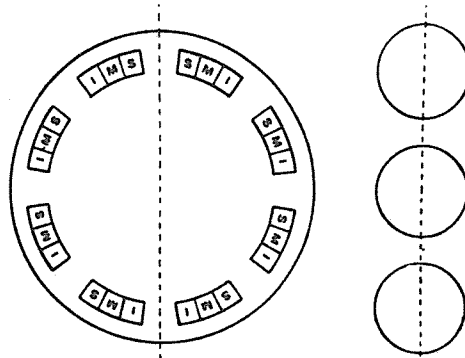
(그림 3) B. C 4500年頃 인더스강에서 발굴된 세다믹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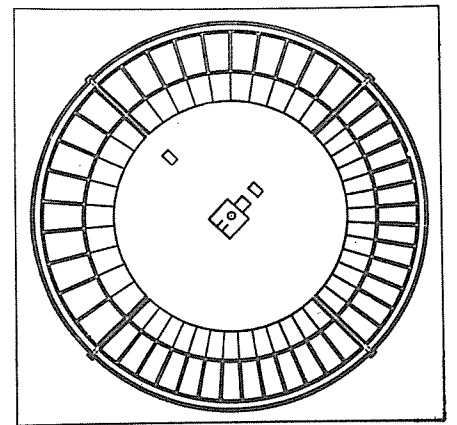
(그림 5) Andtolid 地方에 있는 Cincirli요새



(그림 4 - 1) Kejara의 踏査平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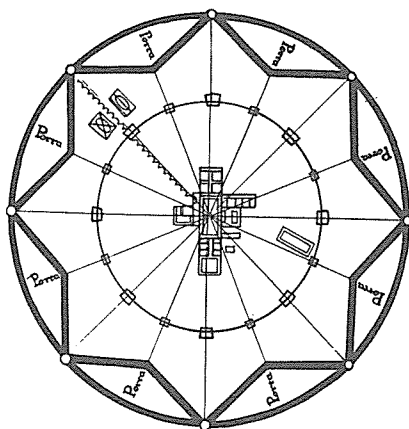


(그림 4 - 2) Bororo村落의 內的構造와 外形的 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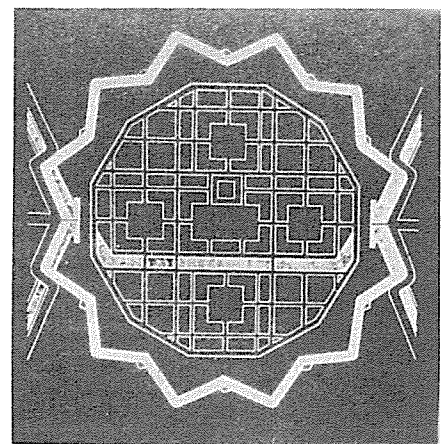


(그림 6) Al - Mansur에 의한 바그다드市の 平面 (762)

(그림 7) Filarete에 의한 “理想都市”의 平面 (1457)



(그림 8) Scamozzi에 의한 “理想都市”의 平面 (1605)



球의 宇宙的 象徴은 해(달)이 뜨고, 지는 地点을 基準으로 方이 概念 整理되고(天體를 觀察하기 위해서 人間은 組織的이고 正確한 方法을 追究하게 됨으로서 前, 後, 左, 右 등의 方向을 認識해야만 하게 됐다.) 各 方에 面하는 幾何學的인 圖形으로서 正四角形이라는 形態를 使用하기에 이른다 고 한다. 그런데 方은 圓, 球에 對比되어 俗된 圖形이고 實用的인 性向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形態는 宇

宙觀에서 보여지는 圖形으로서 理想과 調和를 象徴하며, 宇宙的 表象으로서 古都市, 聚落 혹은 建物平面形態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人間은 生存을 前題로 한 實踐的 領域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環境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原始宗教形態를 模型으로 한 宇宙象을 形成한다. 즉 自然力과 共生的 投影으로서 空間의 原型은 自然力에 대한 人間의 完壁한 反應으로서 하나의 宇宙의 形態를 觀念的 表

度的이다)

○閉鎖의 集團

으로 定義하고 있다. 그러나 古代 家族의 形態學的 特性은 夫婦의 結合에서 安定的이고 堅固, 緊密하고 父子는 結束力을 가지며, 家族成員을 결합하는 求心力이 강하다. 結合되는 結束手의數 및 強度는 많고 크며 많은 成員을 오래 지속한다. “農村家族은 그 個個 成員의 人格을 하나의 集合的 家族人格속에 相互 융합시키고, 단체주의적 으로 思考, 行動하고 그 家族의 일을 組織하고 支配하며 教育, 訓練 및 將來를 위하여 配慮를 하는 아버지 같은 長이 되고, 統治 또는 支配와 服從의 關係가 성립되고 同質的인 농업에 종사하며 각 成員의 職分은 分化되지 않고 家族共同耕作이라는 協同속에서 衣, 食, 住가 일체가 되어 相接觸의 起居속에서 家族共同的 關係가 나타난다.”(22) 즉, 家族은 모든 社會的 相互作用의 가장 基本的 單位로서 얼굴을 마주하는 相面의 集團이다. 이 集團은 그것이 暗示하듯이 그 構成員들은 어떤 目的을 위하여 結束되는 社會共同體 單位이다. 이러한 共同體는 共同體의 特殊한 社會的 조건에 依存하는 社會的 任務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家族은 바로 집이란 用語로 混用되고 거의 같이 使用되며, 집이라는 概念에는 構成員을 초월하여 집 自体가 하나의 社會的 存在이며 하나의 概念의 次元에서 把握되는 存在이다. 個人의 行爲도 집이란 概念의 次元의 存在物인 집의 外形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집을 媒介로 個人이 存在하고 社會生活에 參加된다. 집이란 概念에서는 한 家族이 生活을 영위할 때 必要한 모든 物質이 包含되며, 그 집의 所有로 된것을 總稱하는 概念이다.

“家族이란 家族構成員, 同居同財의 生活共同體라는 것이외에 家居, 家格, 家風을 包含하는 폭넓은 概念으로서의 文化集團이라는 點을 더 附加한다.”(23) 家族은 이러한 概念의 構造를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知覺的 構造를 보여준다.

그것은 組織되어 있지 않고 혼돈되어 있지 않는 觀念들의 한갓 무더기가 아니다. 그것은 일정한 知覺樣式에 의거하고 있다. Terrence Lee에 依하면, “住居는 모든 建物들中에서 가장 평범한 것이다. 그것의 目的은 家族을 위한 環境을 提供하는 것이며, 이 環境은 그 家族員으로 하여금 그들의 個人的 基本欲求, 즉 먹고 자고, 씻고, 배설하고, 입고, 휴식하는 欲求를 充足시켜주고, 또한 討論하고 余興을 즐기고, 사랑하고, 아이들을 기르는 복합적인 社會的 活動을 可能케 해준다.”(24)

이것은 곧 生活을 單位로 한 個體의 小宇宙를 意味하며, 이웃이라는 것도 小宇宙의 交流를 意味한다. 人間은

항상 宇宙속에서 자기가 살고있는 조그마한 돌레를 世界의 中心으로 보며, 자기만의 私私로운 生活을 標準으로 삼으려는 傾向이 있다. 그러면서도 農耕生活에서 必然的 協業化 意識의 集團組織을 出現시킨다. 高承濟에 依하면 “自然聚落의 規模는 3戶내지 5戶정도의 작은 것에 지나지 않으나, 自然家族을 單位로 하는 小村이 成立되었음을 말하여 주는 重要한 事實임에 틀림이 없다. 原始聚落의 成立過程을 分析함에 있어 基本視覺이 되는 事實은 回歸的이고 漂白性이 높은 移村이 언제 定住的인 小村으로 그 形態를 전환하는지를 밝히는 일이다.

따라서, 櫛文土器단계의 堅穴住居人들이 自然家族集團을 定住的인 小村으로 그들의 聚落形態를 발전시킬 수가 있었다는 事實은 原始聚落의 成立段階가 그들에 의하여 完遂되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25) 이러한 것은 原始聚落들이 農耕文化의 初期에 접어들어 감에 따라 定住的인 原始農村으로 그 聚落形態를 發展시키는 文化段階에 이르고 있음을 말해준다. 原始聚落이 定住的 性格의 農業化에 따라 막대한 量의 集中的인 노동력을 必要로 하게 되었으며, 男女의 專門分野가 限定되고 專門技術을 必要로 하게 된다. 이러한 結果로 聚落民 內部間의 相互關係는 前例없이 그 密度를 높여감에 따라서 통제, 조정장치를 必要로 하고 位階的 서열과 規制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들어 간다.

이러한 統制調整裝置, 位階의 序列과 규범은 聚落土地의 特性에 따라서 聚落機能의 分化를 촉진하는 가장 유력한 役割을 하였다.

3-2 生活共同體 意識

人間意識에 있어서 認識은 表象을 包含하며, 또 前提한다. 주위 環境의 모든 對象에 대한 表象은 그저 그 對象을 組織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活動이다.

그러나, 人間과 人間들의 關係에 대한 表象은 훨씬 깊은 意味를 지니고 있다. 이들 集團은 生活을 共存하기 위한 對面的인 社會組織을 形成한다. 이러한 集團社會의 類型은 그것이 規制的이고 規範的인 일 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文化體系 및 文明의 發達과 더불어 하나의 動態的 概念으로 意識되어진다. 여기서 社會集團 組織은 하나의 條件으로, 過程으로 볼수 있게 되고 社會 行態의 構造로써, 또는 社會行態의 過程 또는 動態로서 認識되어질 수 있다. 構造란 어떤 全體의 物理的, 精神的인 面에서 部分들간의 相互關聯性 또는 配列을 말하는 것으로서 認識體系와 社會組織體系의 두가지로 大別되어지는 것이다. 社會組織體系는 家族에서는 家系가 定해지고, 世帶의 一員으로 決定되는 것은 婦人을 통해서 左右된다. 이것은 機能的인 面에서 母系中心의 家內社會를 意味하

고, 父系中心의 家外社會의 意味로서 生活共同體로서의 大家族制 社會를 形成한다. 이러한 大家族의 住居에 관련시켜 생각할 수 있다. 또, 農耕社會 組織은 生存을 영위하는 터전으로서의 土地를 가져야 하고, 여기에서 土地의 獲得과 使用上의 여러가지 共同體意識을 갖게 된다. 또, 農村社會는 生活自体와 密接한 關聯下에 다른 사람들과 獨立된 作物 및 家畜을 栽培, 飼育하면서 勞動을 行한다. 다음으로 人間數와 土地面積사이의 比는 生活 共同體意識에 큰 影響을 미친다. 또한 이러한 生活共同 體 內에서 對人的 相互作用 類型下에서 相異한 役割, 階 級이 서로 結合, 또는 組合될 때 生活共同體 社會集團이 認識되는데, 이 概念은 이러한 集團의 重要한 役割을 한 다.

集團은 그 自体의 集團意識에 대한 特有한 原型을 가 지게 된다. “集團意識의 原型은 形象에 의해 可視的이 되는 것이며 원래는 形態가 없는 心靈的 構造이지만, 原 型은 그것이 통과하는 媒体에 의해 變化하는 것이며, 그 模型도 時間과 空間에 따라, 그리고 原型들이 表明되는 係와 集團의 心理的, 意識의 상태에 따라 變化한다.” (26) 여기에 그들이 떨어진 超自然的 環境에 적응, 調整하 면서 그들 特有의 部落을 形成, 그것에 相應하는 生活 共同體 意識을 갖는다. 또, 그들이 定住하는 部落은 生 存의 條件에 맞는 立地를 찾게 된다. “部落은 수송, 동력 산업, 농업, 그리고 家事의 用途를 提供할 수 있는 畷, 우물, 저수지 周圍에 密集된다.” (27) 部落이란 生活共同體 的 集團社會 內에서 住居의 存在方式은 이웃, 친척, 친 구라는 小範圍의 組織을 통하여 大範圍의 全體인 部落 이라는 組織속에서 存在한다. 小範圍를 生活을 위한 共同 體的, 媒介의 組織이라면, 大範圍는 통제, 조정과 位階 와 規範의 部落이란 全體의 組織의 象徴體이다.

또, 媒介의 組織이란 이웃관계에서 보듯 全體의 組織 의 一部로서 存在할 수 있게하여 주는 中間 集團이다. 個 人的 集合體인 生活共同體로서의 集團社會에 있어서 集 團的 意識과 集團의 無意識으로 對應되는데, 個人的 心 理는 그 個人的 集團社會의 여러가지 現象의 根源이 되 는 한편, 그 個人을 둘러싸고 있는 특수한 集團的인 狀 況은 그 集團속에서 자라나는 人間의 意識形成에 影響을 준다. 傳統이라든가 因習이라고 불리우는 이와같은 어느 集團속에서 意識적으로 育成, 傳承된 精神的 態度 혹은 內 容을 分析心理學에서는 集團意識이라 한다.” (28) 이것에 對應되는 “集團의 無意識이란 神話的인 要素로 이루어진 다. 그것은 神話を 산출할 수 있는 人間의 心理的 可能 性を 말한다. 時間과 空間의 格差, 人種과 文化的 傳統 의 特殊性에도 불구하고 人間이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存 在하는 根源的인 內容, 그것은 모든 心理的 體驗에 勢力 을 공급하는 源泉이며 生物學的인 機能과 밀접해 있는

本能의 作用에도 비길 수 있다.” (29) 한없이 맑고 또 각 양각색으로 다른 神話的 心象, 宗教的 教理, 言語形態, 藝術作品속에서 人間에게 주어진 宇宙의 思考는 이 모든 創作物이 集團的 意識과 無意識에 의해 하나로 結合되 어 있는 一般的인 機能의 통일을 意味한다. 古代人의 生 活속에서 우리는 神聖한 領域밖에서 非宗教的, 혹은 世俗적 인 領域을 發見한다. 습관적 혹은 法的 規則들로 되어 있 는 生活共同體的인 傳統이 있어 共生的 社會生活이 영위 되는 場을 決定하고 있다.

古代人에 있어 宇宙의 象徴은 實 새없이 변하나 그 밑 에 흐르는 原理象徴的 活動 자체는 언제나 동일하며, 意 識은 가지가지로 다르나 宗教的 宇宙觀은 超自然的 象徴 的 實體이다. 심지어 TOTEMISM도 살아있는 모든 存在 的 共同體 (人間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하여, 魔法의 의식 과 宗教的 規制의 엄격한 시행에 의하여 保存되고 強化되 어야 할 共同體)에 대한 깊은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 中國 的 宗教思想에 있어서 De Groot는 中國宗教에 대한 그의 記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것은 죽은 者와 家 族과의 紐帶가 결코 끊기지 않았다는 것, 또 죽은 者가 계속하여 그들의 權利와 保護를 행사하며 가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그들 즉 죽은 者들은 中國人民의 自然 的 守護神이요, 또 家神으로서 妖怪에 대하여 보호하며 또 그리하여 慶事를 가져다 준다…… 人間에게 자기 家族의 作故한 멤버의 보호를 주는 것과 富와 繁榮을 허락함은 祖上崇拜이다. 그러므로 人間의 所有物은 실제에 있어 죽 은 者의 所有物이다. 정말 이 소유물들은 계속하여 죽은 者와 더불어 머물러 있으며 父權과 家長權에 관한 律法들 은 父母가 그 자식이 所有하는 모든 것의 所有主라고 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우리는 父母와 祖上に 崇拜를 中國 國民의 宗教生活과 社會生活의 核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0) 古代人들은 抽象的인 觀念, 具體的이고 現 實的인 自我意識은 主된 것으로 갖는다. 古代人은 그 感情 과 精動을 抽象的인 象徴으로 表現하지 않고 具體的이고 直接的인 方式으로 表現한다.

“中國에서 하늘과 관계되는 建築物에는 하늘의 象徴이 반영되었다. 먼저 天壇안에 있는 圓丘는 그 形態가 둥근 圓環의 三層石段이었고, 新年壇의 九屋石壇위의 3屋 지붕 이 圓形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와도 하늘의 색깔인 靑蓋 瓦이다. 皇帝의 거처인 宮殿의 기와가 黃色이었고 그 다음 의 지체에 해당되는 皇帝의 아들인 親王의 집이 綠色기 와이었을 뿐 이 밖의 建物은 모두 黑色기와이었다는 엄연한 구별을 감안해보면, 靑기와와 靑瓦의 關係를 짐작할 만 하다. 宮 廷을 말할 때 흔히 九重宮闕이라고 하는 바와 같이 北京 의 紫禁城의 規模를 예로 들어 보아도 建築物의 배치가 아홉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1)

이것은 古代 宇宙觀的인 思想을 人間 現生의 삶에 맞

추어서 意圖化된, 抽象的인 觀念을 具體的이고 現實的인 自我意識의 主된 것으로 삼는 現實化라고 할수 있다. 人間은 그 모든 直接的 要求와 實在的 관심에 있어서 그의 物質的 環境에 매여 있다. 또 人間은 知的 및 文化的 生活을 향해서 내디디는 첫 걸음을 直接的 環境에 대한 일종의 精神的 調整을 내포하는 行動이라할 수 있을 것이다. 人間의 自然的인 호기심은 천천히 그 方向을 바꾸기 시작한다. 우리는 이러한 變化過程을 人間의 文化的 生活의 거의 모든 形式에서 엿볼 수 있다. 宇宙에 대한 최초의 여러 神話의 說明속에는 原始的인 宇宙觀과 같이 原始的인 人間論이 언제나 共存하고 있음을 본다. 이러한 人間의 原始的인 宇宙觀과 人間論에 대하여 Ernst Cassirer는 “象徴的 思考와 象徴的 行動이 人間生活의 가장 特色있는 面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 그리고 人間文化의 進歩 전체가 이 條件들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이 다른 모든 有機的 存在에는 주어지지 않고 오직 人間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것이라 할 수 있는가? 象徴性은 더욱 더 깊은 根源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찾아볼 수 있고, 또 더욱더 넓은 範疇에 걸쳐 適用될 수 있는 하나의 原理가 아닌가?” (32) 라고 反問한다.

部落은 人間集團의 自生的 生活共同体로서 生活上의 紐帶에 의하여 함께 連結되어 있다. 部落의 生活共同体의 要因으로서 家族, 親族관계, 集團規範, 勞動交換, 經濟組織, 年齡集團階層, 社會的 관계와 部落의 祭儀같은 文化的 관계로 相存한다. 崔吉城은 “部落에는 部落祭 이외에도 生活共同体의 結束을 強化하는 要因이 많다. 家族, 親族관계, 行政組織, 勞動交換, 經濟組織, 말다니기, 年齡集團등 많은 社會的 NET WORK나 關係를 가지고 있다. 儀禮로서 家祭, 門中祭등이 있다. 이러한 要因들이 때로는 小集團으로 分裂시키기도 하지만, 部落全體가 NET WORK을 갖고 統合性을 強化하는 것이 보통이다. 生活共同体의 單位로서 部落이 되며 部落祭는 그 範圍를 限定짓고 共同体 意識을 強化하는 機能을 갖고 있다. 때로는 數個의 部落이 共同, 때로는 國家의 次元에서의 儀禮가 있으나 生活共同体의 單位로서는 部落에 基礎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李丙憲은 韓國農村 聚落에서 生活共同体의 行事로서 “두레”를 說明하고 있다. 村落單位로 “두레” 組織體가 있어 그 頭領級을 座上 혹은 領座라 하고, 그 밑에 幹事級은 公員이라 하여 실무를 맡아 보았다. 기타의 村民은 男女를 不問하고 “두레”의 會員이 되며 輪廻式 協同耕作 “품앗이” 또는 協同績麻를 행하고 명절에 따라 農樂놀이를 베풀고 또 두레와 두레 사이에 즐다리기 등의 경기를 행하기도 하였다. 즉 “두레”가 人間을 中心으로 人爲的으로 結合된 때는 일종의 精神共同体라 할 수 있지만 어떤 地域을 中心으로 하여 모여들 때는 村落과 같이 地域共同体가 되었던 것이다. “두레”는 地域을 초월한 人爲的인 精神共同体의 지침이라기 보다는 自

然發生的인 地域共同体의 同住者를 말한다고 說明한다.

韓國古代聚落 共同体에서 “마을이란 말은 일반적인 集團形態로서 大小의 會聚에 呼稱된 것으로 村落共同体 (祭祀共同体, 生産共同体)에 일관한 本來的인 共同体의 汎稱이다. 이것은 村落共同体下에서 氏族神의 또는 農業生産의 穀靈의 信仰과의 合一體로서의 祭祀共同体의 一面을 가지기도 하며 農業生産에 隨伴된 物質的 欲求充足을 위한 人間의 集團과 農業生産 그 自體의 協同性, 즉 共同勞動으로서의 單純協業을 위한 生産共同体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防禦共同体로서…… 그리고 新羅統一 이후 高麗朝에 걸쳐 強化된 律令國家體制下에서의 權力構造에 對應하는 單位集團으로서의 共同体, 農業生活을 위한 共同隣保團體로서의 村落을 意味한다. 또한 이러한 社會集團의 結束意識과 함께 文化集團의 儀禮로서 家宅神을 모시는 家宅祭와 部落全體의 安寧을 비는 部落祭가 存在한다. 部落祭는 또 文化行事로서 發生했지만 그 行事에는 社會集團의 行事를 隨伴한다. 洪一植은 “部落祭가 단순한 文化行事 또는 慣習이라는 線을 넘어서 部落祭를 前後하여 開催되는 部落會議라는 일종의 自治制度를 겸하고 있는 점에 또 하나의 社會的 存在意義가 있음을 看過할 수 없다” (34)고 說明하면서 巫俗部落祭도 그 構造와 根本性格은 部落祭와 같다고 強調한다. 이러한 生活共同体는 集團의 社會構造를 形成하며, 이러한 社會는 共同体의 感覺 (SENSE OF COMMUNITY)과 흔히 集團으로 생각되는 種類의 어떤 協同機關에 대해서 誠實性을 가져야하며 또한 한 領域內에서 相對的으로 効果적인 規範的 秩序를 수집해야 한다.

4. 聚落的 空間構造

4-1 生活共同体로서의 空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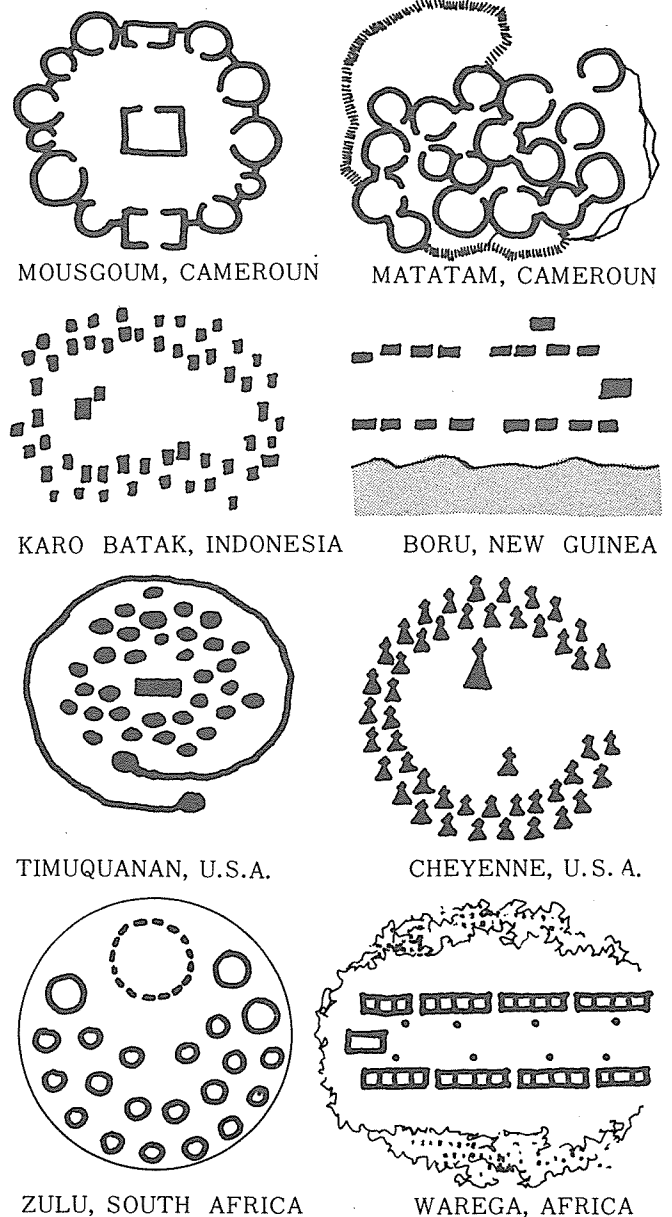
古代聚落的 空間構造는, 形式과 內容이라는 두개의 獨立되어있고 孤立되어있는 要因으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統一體이다. 空間構造란 形態, 構造, 均衡 및 秩序이다. 그래서 物理的 空間(科學的 空間)과 抽象的 空間(觀念的 空間)을 明白하게 糾明할 수 없다. 古代人의 精神에서 그들은 어떤 環境속에서 살아가기위해 그들은 그들자신 새로운 環境에 그들을 適應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 모든 것은 個體의 경험에 의해서만 認識되지 않는다. 아메바, 진드기나 갓난동물들은 空間의 거리와 方向에 대해서 매우 正確한 感覺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人間은 知覺的 空間이라는 새로운 形態의 空間을 본다. 人間에게 이 空間은 서로 같지않는 여러 種類의 感覺經驗(視覺, 觸覺, 聽覺, 근육感覺)의 要素를 포함하고 있다. 이 要素들이 知覺的 空間을 構成하는데 協同하고 있다. 또 有機的 空間(行動의 空間)에 관한 한, 人間은 動物보다 못하다. 그러나 人間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思考過程에 의해서 人間特有的인 抽象的 空間의 觀念에 도달한다. 人間에게 하나의

새로운 知識의 分野뿐만 아니라 그 文化生活의 한 方向으로 길을 닦아주는 것은 觀念인 것이다. 古代人의 文化生活에 있어서 그들의 行動空間에 理論的 혹은 科學的 空間概念으로 가는 段階는 매우 어렵다. 科學的 空間에 있어서 人間의 직접적 感覺經驗의 모든 具體的인 差異가 일소된다고 한다. Ernst Cassirer는 科學的 空間은 人間 感覺들이 고르지 못한 性質에 의해 人間에게 주어진 모든 多樣性과 異質性으로부터 抽象한다. 여기서 人間은 同質的이고 보편적인 空間을 가지며, 人間은 독특한 組織的인 宇宙秩序의 概念에 도달하는 것은 이 새롭고 特色있는 形態의 空間(宇宙觀)을 媒介로 해서이다. 이같은 秩序의 觀念, 宇宙의 統一성과 合法則性的 觀念은 이 齊一性的인 空間의 觀念이 없었던들 절대로 생기지 못했을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古代人의 思考는 空間係에 관해서 抽象的인 생각을 하고 또 空間의 圖式을 觀念的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그 具體的인 空間은 하나의 圖式的인 觀念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Malnowski는 神話的 世界의 客觀的 中心을 말하면서 人間들은 太陽을 그것의 周圍에 古代人이 그 여러 象徵的인 이야기를 엮는 唯一의 主題로 본다. 그리고 바람, 천후 및 하늘의 빛깔을 神話的 本質로 보는 氣象學的 解析者들의 學派가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觀念은 超自然力에 대한 古代人들의 공포적 대상으로서 密接하게 生活에 共存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氣象에 대한 探究가 하늘인 天을 研究하게 되고 人間에게 天文學에 觀心을 기울이게 한 동기가 되었다. 天文學을 “人間文化의 歷史에 있어서 宇宙秩序의 概念으로 이끈 이 위대한 일반화는 바빌로니아의 天文學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 이 天文學에서 人間의 具體的인 實在生活의 태두리를 초월하는 思考, 포괄적인 視野속에 全宇宙를 포용하려는 思考에 대한 최초의 明確한 증거를 본다. 바빌로니아의 文化가 모든 文化生活의 요람으로 생각되어온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많은 學者들은 주장하기를 人類의 모든 神話的, 宗教的 및 科學的 着想은 이 根源에서 나왔다고 하였다”(35) 人間은 神話的 象徵 혹은 超自然的인 宗教的 意味에 둘러싸여 이러한 人爲的 媒介物의 힘에 依支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볼 수도, 알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人間의 이러한 狀況은 理論的 領域에서 또 實踐的 領域에서도 마찬가지이다. 人間은 現實들의 世界에서 살고, 그의 直接적인 要求와 欲望에 따라서 살고있는 것보다 오히려 想像的 情動의 한 가운데서, 희망과 공포속에서, 환상과 환멸속에서, 또 공상과 꿈속에서 산다. 우리는 認識의 世界에 살며, 認識은 感覺知覺, 記憶, 經驗, 想像 및 理性 모두가 共通되는 하나의 紐帶에 의하여 連結되어 있다. 어느 면에서 動物과 그밖의 有機的 生命이 共有하는 것이다. 人間의 認識은 그 本性에 있어서 象徵的 認識이다. 이것은 人間認識의 힘과 限界를 特徵짓는 것이다. 古代人의 思

考에 있어서 象徵은 魔力, 혹은 物理的인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古代聚落의 空間構造를 構成하는 要素는 文化形態의 因子와 共生的 社會形態의 因子로 具體化할 수 있으나 天文學은 聚落空間을 극복하고 宇宙秩序 즉 宇宙組織을 發見하는데 이끌어간 過程의 여러 最初의 局面을 볼 수 있다. 그리고 古代聚落의 空間構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表現의 全體를 研究하지 않으면 안된다. 超自然과 社會構造가 古代聚落 空間構造의 참된 模型인 것이다. 그 모든 人間動機는 人間이 超自然力과 生活共同體의 社會生活의 實投影이다. 즉 人間의 集團的 象徵의 表象이다.



(그림 1) 人種別 聚落의 形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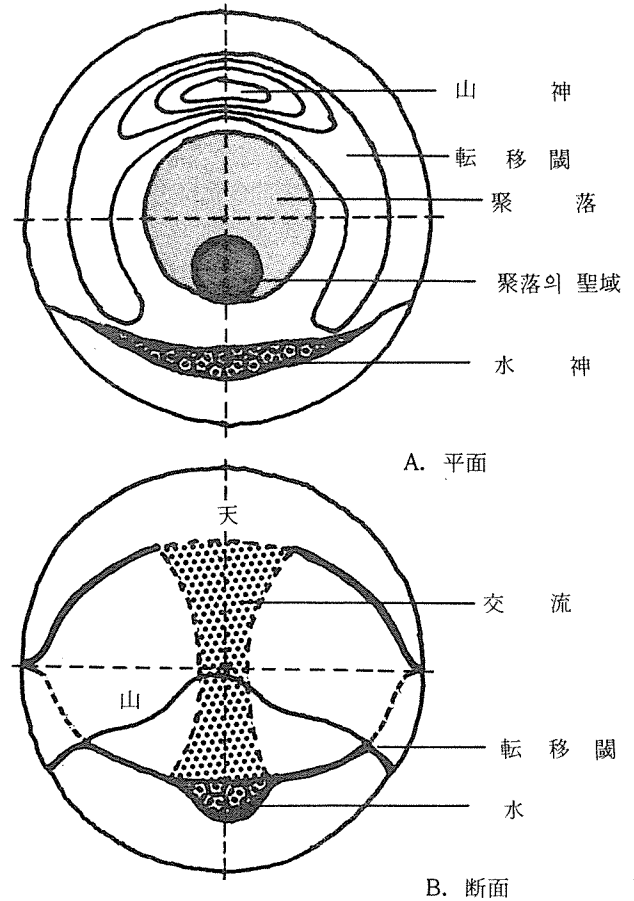
古代人의 聚落空間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土地는 農耕의 領域, 集合의 領域, 居住의 領域, 狩獵의 領域, 물과 神聖한 意味를 가진 特別한 場所등을 가지고 있다. 이것

은 細分하여 生産에 따른 空間의 限定으로 分業化의 空間, 協同活動의 空間, 個個親族集團에의 資源配分에 의한 空間, 聚落을 다스리기 위한 位階의 空間, 家族生活을 獨立의 所有의 空間으로 分割되며, 協業의 最小單位로 한 3~5戶의 家居로 構成한다. 즉 古代의 聚落集團을 生活共同體로서 農業및 家畜을 행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區劃의 土地, 獨占의 所有, 共同의 所有, 分化에 의한 所有, 家族單位에 의한 所有에 必要한 土地를 바탕으로 한 同心圓的 空間構造를 形成한다.

4-2 文化行事로자 空間

古代人은 生과 死에 의해서 限界지어지는 有機的 生命의 象徴化, 土地를 포함하는 自然環境의 象徴化, 生活에 必要 불가결한 象徴化, 人間의 社會의 地位와 人間의 生殖作用을 영위하고 그 결과 子孫을 갖게되는 象徴化, 言語를 통한 意思傳達樣式의 象徴化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런데 “古代人은 原型의 模倣과 典型的 행위의 반복에 의해서 世俗의 活動의 領域을 태고적 時間과 空間으로 還元시킨다. 말하자면 世俗의 空間도 神聖과 同一化하는 傾向에 따라 聖域을 中心으로 꾸며지며 宮殿이나 寺院 혹은 特定 建物들은 神聖이 자리하고 있는 地點을 中心으로 즉 神話의 空間에 따라 配列된다. 神聖이 떠나버린 地點에는 伝說이 발생한다. 이러한 空間理論에 대해서 原型의 行為의 모든 祭儀의 反復은 世俗의 時間을 止揚시키고 그런 行위는 神話의 時間에 참여하게 된다. 祭儀가 進行되는 동안에는 世俗의 時間은 중단되는 것이다”⁶⁶⁾ 神話의 祭儀에 있어서 世俗의 時間停止와 原型의 行為의 神話의 時間에의 참여를 實踐하는 人間은 예언자들이다. 舞踊은 祭儀의 司祭를 대신하고 繪畫는 聖域의 空間을 心象化한다. …… “原型을 形象짓는 태초의 祭儀執行者들은 하늘과 땅을, 地上과 地下를 그리고 빛과 어둠, 此岸과 彼岸을 잇는 그 機能을 現代의 世俗社會에서 知識과 哲學, 詩와 藝術, 法과 戰爭을 遊戲의 形式으로 침전시켜놓고 있다.”⁶⁷⁾ 古代聚落에서 그들은 그들의 固有한 聖域을 가지고 있으며(나무, 동물, 돌, 물, 해와 달, 바람, 산, 언덕, 水源) 聚落마다 갖고있는 境界가 되는 轉移關이 되는 土地의 비슷한 地形등을 지니고 있다. 그뿐 아니라 祭禮樣式, 祭禮日字, 祭禮에 수반된 禁忌, 祭禮를 대하는 部落民의 意識이나 情緒的 反應등도 대체적으로 같은 範圍를 갖는다. 宇宙의 最高神들의 宗教的 效用이 아주 없어지거나 감소되는 것은 하늘과 땅, 地上과 地下 사이의 交通이 누구에게나 가능하고 그것은 神話속에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古代人들의 巫(SHAMANISM)라 한다면 古代社會에서 最初에 巫(SHAMANISM)가 發生하여 古代人의 生活에 認識될 수 있었던 것은 巫(SHAMANISM)를 必要로 하였던 이와같은 心的狀態를 宗教心理上으로는 人間이 어떤 形式으로든지 自我를 向上

시키려는 宇宙에 대한 科學的 觀察에서 그 原因을 찾아볼 수 있다. 古代人들에게는 이 세상 모든 것에 形式과 內容을 가지고 있으며 象徴的인 意味가 內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自然物로서 岩石, 樹木, 動物, 人間, 山과 溪谷, 日과 月, 風, 水, 火에서 볼 수 있고 집, 작은배와 같은 人爲的인 것과 抽象的인 形態로서 數, 三角形, 四角形, 圓形(球과 같이 宇宙를 象徴하는 幾何學的인 形態)과 같은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2) 聚落의 宇宙의 概念圖

4-3. 宇宙의 象徴으로서 形態

宇宙에 대한 象徴으로서의 幾何學的인 形態의 原型은 圓, 球로 表現한다. 이러한 形態의 發想은 회귀적인 觀念과 原始부터 내려오는 循環이라고 하는 土俗的 觀念에 의한 것 같다. 또한 인도라든지 이집트같은 原始社會에서는 뱀의 生態를 觀察하고, 뱀은 일년에 한번씩 껍질을 벗긴다. 그 生態의 循環現象의 象徴化로서 圓形的인 形態를 찾았다고 한다. 그러나 古代에 이르러 宇宙의 象徴으로 原型을 圓, 球形으로 하게 된 原因으로는 農耕文化에 접어들면서부터 始作했다. 農耕文化는 天文學을 發生케 했는데 여기서 해와 달은 人間에게 가장 重要한 觀察對象이 되고, 해가 뜨고 지며하는 現象을 圓形化하게 이른다. 이러한 圓形은 人間의 居住集團, 居住地, 住居形態, 使用器具

象으로서 나타낸다. 그것은 個人, 集團, 國家에 있어서 自我를 찾고, 表現하려는 觀念의 象徴의 實體化이다. (그림 4-1 4-2) 참조

다시 말해서 人間의 都市, 聚落(居住 및 生産地의 總體), 住居 또 그들이 使用하는 器具들의 紋樣 등은 超自然力(神權)에 접근하고자 하는 意圖로서 表現되는 象徴體이다. 결과적으로 古代人은 聚落의 空間構造가 聚落民을 精神的, 物理的으로 結束시키는 表象으로서 物理的, 象徴的인 意味를 空間的으로 해결하는 하나의 實存的 장치이다.

(그림 5 6 7 8) 참조

5. 맺는 글

人間은 생각하고, 自我를 發見하고 또 象徴을 할 줄 아는 動物로서 周圍에 떨어진 環境을 調節, 調和, 理想化하는 能力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들을 凶形으로 表現하는 能力을 가지며, 그것에 意味를 부여하고, 象徴化할 줄도 안다. 그러나 그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經驗을 土台로 하여 觀念을 媒介로 하여 象徴할 수 있는 能力을 가졌다. 聚落의 空間構造도 마찬가지로 生活을 영위하고, 生存하기 위해서 人間은 그들에게 주어진 環境을 適應하고, 改變하고, 더 더우기 意味를 부여하며, 이러한 觀念들의 表象으로서 象徴性을 부여한다.

古代人의 聚落空間은 實用的인 면과 象徴的인 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實用的 側面

- 管理体制, 統治体制의 便益을 위한 空間의 配置
- 家族單位 夫婦를 中心으로 한 血緣으로 맺어지는 對面的 秩序에 따른 空間의 配置
- 協業化, 分業化에 의한 生産의 機能分化에 따른 空間의 配置
- 人間集團이 生存하기 위한 社會集團機能의 密度, 重要性에 따른 空間의 配置

2. 象徴的 側面

- 天文学으로서의 宇宙觀의 表象으로서 空間의 配置
- 農耕의 影響으로 日, 月에 대한 觀念의 表象으로서 空間의 配置

- 原始宗教 SHAMANISM의 神域에 따른 空間의 配置
- 祭儀行事時의 聖所의 位置에 따른 空間의 配置
- 自我의 意識으로 인한 中心(center)의 觀念으로서의 空間의 配置

이와같은 古代聚落의 實用的 및 象徴的 分類는 明確하게 二次元的으로 區別되는 것이 아니라 時間과 空間의 相關關係에 따라서 單純化, 重疊化 되어지는 것으로 判斷된다. 또한 都市, 聚落, 住居의 空間構造는 機能的, 象徴的인 意味가 重疊되어 있는 것이지, 單一한 意味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古代聚落의 空間構造는 時間的 繼起性에 의해서 “場”의 多樣性을 부여하는 것을 그 特質로 삼을 수 있다. 또한 空間效率의 提高機能으로서 空間機能의 轉換에 의하여 時差를 두고 하나의 空間이 復數機能을 受容하며 單位空間에 多樣한 機能과 性格을 부여한다.

참 고 문 헌

18. C. O. SAUER 張保雄 訳, 農業文化의 起源 P. 20, 瑞文堂, 1978年
19. 李光奎, 韓國家族의 構造分析 P. 28, 一志社, 1975年
20. 韓永愚, 朝鮮前期의 社會思想 P. 104, 韓國日報社, 1975年
21. 劉永珠, 家族關係學 P. 51, 修學社, 1977年
22. 王仁權, 農村社會學 P. 101, 富民文化社, 1977年
23. 李光奎, 前揭書 P. 291
24. TERRENCE LEE, PSYCHOLOGY AND THE ENVIRONMENT P. 65, METHUEN, 1976年
25. 高承濟, 韓國村落社會史 研究, 一志社, 1977年
26. 李相日, 韓國思想의 源泉 P. 27, 養英閣, 1973年
27. SPENSER W. HAVLICK, THE URBAN ORGANISM P. 113, Macmillan, 1974年
28. 李符永, 韓國思想의 源泉 P. 289, 養英閣, 1973年
29. 李符永, 上揭書 P. 291
30. ERNST CASSIRER 崔明官訳, 人間이란 무엇인가? P. 125, 展望社, 1979年
31. 黃元九, 中國思想의 源流 P. 32, 延大出版部, 1976年
32. ERNST CASSIRER 崔明官訳, 前揭書 P. 43
33. 崔吉城, 韓國巫教의 研究 P. 290, 垂細垂文化社, 1978年
34. 洪一植, 韓國傳統文化試論 P. 142, 高大出版部, 1976年
35. ERNST CASSIRER 崔明官訳, 前揭書 P. 69
36. 李相日, 前揭書 P. 19
37. 李相日, 上揭書 P. 22